

сахалин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h1 style="margin: 0;">새고려신문</h1> <p style="margin: 0;">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div>	2021년 3월12일(금) --- (음력 1월 29일) --- Пятница 12 марта 2021г. № 10 (11927)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	--



마슬레니차 : 겨울 전승, 봄맞이 축제

마슬레니차는 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찾아 온 것을 환영하는 축제 기간이다. 올해 마슬레니차 주간은 3월 8일부터 시작되었다. 러시아에서는 이 기간을 즐겁게 보내야 하고 마슬레니차 주간 동안 매일 블린(러시아식 팬케익)을 만들고 나눠 먹는다.

보통 마슬레니차 마지막 날(음서 비는 일요일)에 본격적인 행사들이 펼쳐진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서 시민들을 위한 신나는 마슬레니차 행사들이 오는 14일 가까운 휴식공원에서 개최되는 가운데 민속놀이, 블린 먹기, 즐거운 공연과 오락놀이, 겨울 상징인 짚인형(15미터) 태우기 등이 펼쳐질 예정이다. 주최 측은 올해 처음으로 2.5미터 크기의 블린을 만들 계획이라며 기대해 달라고 전했다.

▲ 유즈노사할린스크시 가까운공원. 마슬레니차 축제의 한 장면.

(이예식 기자 사진첩에서)

'청년 전문가들' 지역 선수권대회에 600여 명 참가

사할린 지역에서 6번째로 전문기능 경연이 열린다.

직업기능대회는 3월 11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9일까지 지역 전문기능 경기에 직업교육기관 대학생들, 학교 및 보충교육기관의 학생들이 89개의 직업기능 경연에 참가한다.

"사할린 지역 러시아 직업기능 (World skills Russia) 선수권대회는 청년들의 전문직 생성에 있어 특정 행사가 되었다. 학생들이 이 경기 준비를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어떤 끈기로 시험 시 자신의 실력을 증명할지, 어떤 전문적 열정을 가지고 서로서로와 함께 경쟁을 할지 지켜볼 것이다. 이번 참가자들에게 대한 평가는 노동기능의 국제적 평가 기준에 따라 이뤄지며 선수권대회 결과에 따라 학생들이 이론과 실제에서 얼마나 전문적으로 성장했는지를 평가할 것이다."라고 사할린주 교육부 아나스타시야 키크테와 장관이 말했다.

2021년 선수권대회는 전문기능 22개가

늘어나 크게 증가한 점에서 특별하다. 새로운 기능 분과는 '석유 및 가스 채취', '항공교통 서비스', '건설 기초공사',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빌딩 정보 모델링: 건설 설계에서부터 공사,유지보수, 빌딩 철거에까지 건축물 관련 설계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것' 설계정보 기술, '사회적 직업', '실속 있는 생산성', '항공 정비 서비스', '요식업 서비스' 등이다.

"사할린 전역에 27개 경연장이 펼쳐진다. 올해는 처음으로 교육기관의 행사장에서만 아니라 최대한 실제와 밀접한 조건을 갖춘 협력기관 행사장에서도 경연이 열린다. 예를 들면 '항공교통 서비스' 부문의 참가자들은 유즈노사할린스크 공항의 경연장에서 작업한다."고 지역 기능조정 센터의 소장이 말했다.

이번 대회에 443명의 전문가들 - 산업교육 전문가, 사할린 기업들의 직원과 강사들 - 이 참가자들을 평가한다. 또한 '청년 기능인 (러시아 직업 기능인 선발대회)' 연맹 28명의 공인 전문가들이 선수권 대회 진행을 감독한

다. 전통적으로 지역 선수권 대회의 일환으로 학생들을 위한 직업지도 프로그램이 조성된다. 지난 2월 18일부터 사할린 지역의 학생들이 경연 행사장을 견학하여 경연 참가자들, 전문가들, 기능 선수들과 친분을 쌓고 있으며 활동교실에도 참석하고 미래에 갖게 될 직업의 비결을 알아보고 있다.

선수권 대회의 일환으로 사업의 인재 확보를 주제로 하는 광범위한 사업 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의 참가자들은 주 지역기관 대표들, 사할린주 경제개발 부문의 전문가들, 단체 및 기업, 사회사업의 총 책임자들이다. 이외에도 한국, 아랍에미리트, 일본,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태평양국가들에서 국제기능 올림픽 행사 대표들이 참가하는 국제적 세션이 계획되어 있다.

지역 선수권 대회 개막식은 3월 11일 오후 2시에 온라인으로 열렸다. 시청자들은 지역 인적 자본개발청의 공식 유튜브 페이지에서 볼 수 있었으며 폐막식은 3월 19일에 열린다.

단신

11개국 알파인 스키 선수들, '극동컵' 쟁탈 사할린 지역 단계 참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위상 높은 경기 '극동컵' 알파인 스키대회'가 사할린에서 열린다. 사할린은 벌써 6회째 대륙적 컵 단계의 알파인 스키 경기를 3월18일-28일까지 고르니워즈두흐 스포츠 관광단지에서 개최한다. 현재까지 11개국에서 115명의 스키 선수들이 참가 의사를 밝힌 가운데 참가 신청 국가들은 러시아, 슬로베니아, 독일, 오스트리아, 아르헨티나, 일본, 체코, 에스토니아, 덴마크, 카자흐스탄, 대한민국이다. 이 중 러시아와 일본 선수들이 많았고, 러시아에서는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칼루가, 크라스노야르스크, 레닌그라드주 및 모스크바주에서 선수들이 출전하며 경기 일정은 3월 19일부터 3월 27일까지 남녀 대회전과 회전 2개 종목에서 경기를 치른다.

'혼프-넙흐족의 봄' 이케바나 전시회 개최

3월 13일부터 14일까지 사할린 지역 미술관에서 <혼프-넙흐족의 봄> 이케바나바(일본 전통 꽃꽂이)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에는 넙흐족의 전통 예술을 모티브로 해서 '소게츠' 이케바나 학교의 전문 강사들이 만든 20개 이상의 작품을 선보인다. 이케바나 장인들의 작품 속에서는 넙흐족이 일상 공간을 꾸미고, 예식과 악기 제작을 위해 오랫동안 이용해온 식물들인 버드나무와 안젤리카 베어, 낙엽송으로 장식되었다. 원하는 사람은 넙흐족의 전통 악기 치야치 츠하르쉬를 익혀볼 수 있다

소비자보호감독청, 사할린 주민 위한 행사 준비

해마다 3월15일 '세계 소비자 권리보호의 날'을 맞아 사할린 소비자보호감독청이 일련의 행사를 준비했다. 지난 11일(목) 사할린 일반 과학도서관에서 '소비자의 권리: 연구하고, 계몽하고, 보호하자'라는 주제로 정보의 날을 진행했다.

오는 15일(월) 유즈노사할린스크 중앙도서관에서는 사할린주 소비자보호감독청의 소비자권리보호 과의 전문가들과 도서관의 직원들이 참가하는 가운데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소비자는 항상 옳은가?!!'라는 원탁모임을 개최한다.

사할린주, 코로나19 새 확진자 대폭 줄어

2월 말부터 사할린주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대폭 감소되어 지난주와 이번 주초에 확진자 수는 10명 미만까지 내려갔다. 3월10일(수) 현재 총확진자 수는 2만1766명이며 965명이 치료 중이고, 총사망자는 37명이다. 백신접종은 3만135명이 받았고 1만9천810명이 접종을 예약했다.

새고려신문	<h2 style="margin: 0;">2021년 상반기 신문주문 계속</h2> <p style="margin: 0;">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1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할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p> <p style="margin: 0;">1개월 구독료는 91루블리 85코페이카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IIP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수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 0;">(본사 편집부)</p>	
--------------	--	--

인터뷰

최 빅토리아, 사할린 한인을 소재로 단편 집필

세계의 여성의 날을 앞두고 유즈노사할린스크시민 **최옥순** (1966년생, 러시아명 빅토리아) 이 <리조마. 모든 사람들을 위함이 아닌 단편> 단편소설 선집의 작가로 등단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본사가 더욱 이 소식에 반가워 한 이유는 최 빅토리아가 2019년 새고려신문사에서 주최한 에세이 콩쿠르(러시아어)에 참가하여 2등을 했었기 때문이다. 본사 **배순신** 기자는 최 빅토리아 씨의 삶과 창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 우선 자기소개를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 저는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서 1966년에 태어났습니다. 노보시비르스크 전기 기술대학을 졸업했고 전공은 경제언지니어입니다.

대학 졸업 후 잠깐 경제학 전문가로 활약했구요. 페레스트로이카가 시작되자 저의 아버님이 한국에서 식품을 수입하는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세관 통과를 위한 서류작성 전문가(세관 신고자)가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레닌그라드에서 이와 관련한 전문 연수과정을 수료한 다음 계속 이 분야에 종사하면서 이 일이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 특히 석유가스회사와 사업하는 게 재미있어요. 어렵고 복잡한 기술 용어들을 익히고,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정보가 많이 읽게 되었습니다. 또한 파트너와 연락(서면으로)을 하기 위해 영어도 익히게 되었어요.

- 빅토리아 씨는 언제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어? 독서, 문학을 즐기게 된 동기는요?

- 아마도 저희 동갑내기들과 똑같이 저는 어릴 적부터 독서를 즐겼어요. 옛날에 세계문학도서를 찾아 읽는 것이 유행이었죠. 책을 아주 많이 읽었어요. 사춘기 때는 모든 여자애들 처럼 일기를 썼어요. 그때는 어린 자기만의 걱정을 표출하는 것 뿐이었죠. 성인이 되어, 시집 가고, 아이를 낳고 하니 독서를 즐기는 시간은 줄어들었어요. 그렇지만 여행할 때는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읽고 있어요.

아이들이 성장하고, 집을 떠나면서 자신과 자신의 취미에 대한 시간이 좀 생겼어요. 제가 요가도 해보고, 산 스키도 익히고, 카이트 서핑(패러글라이딩과 서핑의 특성을 조합하여 개발한 것으로 패러글라이딩과 같은 대형 카이트(연)를 공중에 띄우고 이를 조종하여 바람의 힘에 따라 서핑 보드를 끌면서 물 위를 내달리는 레포츠다.)도 해보고 명상



도 했습니다.

2019년 인터넷에서 우연히 'CWS - 온라인 문학 창작실'이란 사이트를 발견했는데 3개월 교육과정의 학비를 냈죠. 뜻밖의 교육과정의 담당자인 마리아 쿠즈네초바 작가가 저에게 '글 쓰기를 어디에서 배웠냐'고 물어봐서 글을 배우고 써본 적이 없다는 데 놀라워 하기도 했습니다. 이 교육과정의 모든 부분은 아주 창조적이었고 정말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출근하기 전에 숙제를 하기 위해 제가 아침 6시에 일어났다가요.

10000시간에 대한 이론이 있는데요. 누구든 아무 일에 10000 시간을 투자하면 높은 수준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고, 정확히 말하면 일을

많이 할수록 일이 좋아지고, 일이 더 더욱 마음에 들게 되는 거죠. 저는 지금 제가 쓰는 글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있고 현재 이것이 저의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되었습니다.

- 몇 년 전에 영주귀국하신 1세분들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되었고 특히 일부 어르신들이 사할린으로 돌아오기 시작해서 빅토리아가 주한인협회에 이에 대해 정책을 좀 세워야 겠다는 의견을 표명한 적이 알고 있는데요.

- 저희 부모님(박양기, 박옥분)은 2008년 귀국하여 인천에 살고 계십니다. 저의 첫 번째 단편은 바로 부모, 그리고어쩔 수 없이 부모와 헤어져 사는 자녀들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더 나은 거라고 진심으로 믿었거든요. 그러나 손자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가족과 떨어져 사는 편안한 삶이 행복한 삶이 아니란 걸 깨닫게 됩니다. 저의 동년배들도 이걸 잘 이해하고 약해지시는 부모님들을 어떻게, 어디서 끝까지 모셔야 하는지, 자기 나름대로 해결책을 찾는 것 같아요.

- 빅토리아 씨의 "할머니에게 가는 길"이란 글이 우리 신문사가 주최한 에세이 콩쿠르에서 2등을

했는데 즐거리는 어떻게 창작하게 되었는지요? 제가 알기엔 이 주제가 경연 심사위원들과 많은 독자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 이런 경연대회를 개최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콩쿠르의 조건을 읽어보고 '무엇에 대해 쓸까'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웬지 할머니가 생각났어요, 그리고 물론 부모님... 그리고 저의 만팔이 거의 매일 화상통화를 해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통해 멀리 사는 손녀들을 보게 됩니다. 할머니, 부모, 딸, 손녀들에 대한 생각이 모든 것이 단편의 주제가 되었던 것 같아요. 저의 단편은 고안했다기보다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애기들입니다.

- 빅토리아 씨의 단편소설들을 우리 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는 게 기쁩니다. 단편들의 주인공들이 사할린 한인들인데 내용 구성의 아이디어는 어떻게 찾으시지요

- 저는 즐거리를 애써 상상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친구랑 그의 생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인천에 있을 때 지하철역에서 사할린 할머니들이 하는 이야기를 엿들어보거나 해서 제 머리 속에 즐거리가 하나 하나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3면에 계속)

이 모 저 모

유즈노사할린스크의 학생들, 지식 게임에서 경쟁

3월 7일 '등대' 아트 레지던스에서 중등 그룹 학생들을 위한 지식 게임 선수권대회가 열렸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선수권대회에 여러 학교들 - 3, 5, 8, 16, 26호 학교와 1, 2, 3, 호 김나지아, 2호 리웨이 - 에서 9 팀이 출전했다. 대회에 출제된 '무엇을?, 어디에서?, 언제?'와 챔피언대회에서 경쟁이 됐던 다중매체를 이용한 문제들은 '로고스'클럽의 제작팀이 출제했다.

2호 김나지아 팀은 첫 문제부터 앞선 가운데 마지막까지 선두를 지켰다. 은메달을 두고 1호 김나지아 팀과 8호 학교 팀이 접전하여 1호 김나지아 팀이 2위를 차지했다.

8호 학교 팀에 특별히 주목할 만한 이유는 3명으로 구성된 팀임에도 불구하고 수상자 순위에 오를 수 있었다는 데 있다. 경기는 톨립에 대한 문제로 마무리 되었는데, 이는 3월 8일 모든 여성들에게 축하하는 특별한 동기가 되었다.

상위 3팀들에게는 책과 보드게임을 선물로 수여하고 크리스탈 부엉이 트로피는 중등 그룹 선수권대회의 우승자에게 수여되었다.

Школьник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определили самых умных на интеллектуальных играх

7 марта состоялся чемпионат по интеллектуальным играм для школьников средней возрастной группы в арт-резиденции "Маяк". За звание чемпион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разились 9 команд из разных школ (СОШ №3, 5, 8, 16, 26, гимназии №1, 2, 3, лицей №2). Все вопросы "Что? Где? Когда?" и блоки мультимедийных фрагментов, которые игрались во время чемпионата, были подготовлены авторской группой клуба "Логос"

Команда гимназии №2 с первых вопросов вышла вперед и не упустила лидерство до самого конца. За серебряные медали боролись команды первой гимназии и восьмой школы. В итоге второе место заняли гимназисты. Команда восьмой школы заслуживает особого внимания, потому что смогла занять призовое место, несмотря на всего трех игроков в своем составе. Игра завершилась вопросом о тюльпанах, который стал отличным поводом поздравить всех женщин с 8 Марта.

Команды, занявшие первые три места, получили в подарок книги и настольные игры. Победители получили хру-

стальную сову — переходящий приз для чемпиона в средней возрастной группе, сообщают организаторы мероприятия.

소비자보호감독청, 2021년 국가 수능시험 최고 인기 과목 발표

러시아 학생들 가운데 2021년 국가 수능시험에서 전문 수학이 가장 인기 있는 과목으로 선택됐다고 러시아 소비자보호감독청이 전했다.

시험에서 전문 수학을 40만8천여 명의 학생이 선택한 가운데 선택 과목 중 선두를 차지하고 있다. 2위로 선택된 과목은 사회상식으로 35만6천여 명이 선택했고 '로시스카야 가제타(러시아 신문)'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가장 널리 선택된 과목은 러시아어로 72만6천 명의 학생들이 시험을 치를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2021년 국가 수능시험에 생물 과목은 15만3천 명이 선택한 가운데 오랜만에 처음으로 물리학(15만1천 명 선택)과 정보학(11만6천 명 선택), 화학(10만6천 명 선택) 과목을 앞질렀다. 인기가 낮은 과목으로는 문학을 6만2천 명, 역사 2만2천 명, 지리학 2만1천500명이 선택했다. 외국어 과목에서는 영어가 가장 앞섰고 이어 독일어와 프랑스어가 뒤를 이었다. 이미 전해진 바와 같이 2021년 국가 수능시험은 5월 31일 지리, 문학, 화학 과목 시험부터 시작되며 러시아어 시험은 6월 3일과 4일 양일간 치르게 된다.

Рособрнадзор назвал самые популярные предметы на ЕГЭ в 2021 году

Самым популярным выборным госэкзаменом в 2021 году у российских школьников оказалась профильная математика. Такие данные приводит Рособрнадзор.

Среди предметов по выбору лидирует профильная математика – на нее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лись почти 408 тысяч школьников. На втором месте среди выборных – обществознание (356 тысяч человек). «Самым массовым экзаменом остается ЕГЭ по русскому языку, его планируют сдавать почти 726 тысяч человек», – приводит данные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Также в 2021 году 153 тысячи человек выбрали для сдачи ЕГЭ по биологии (предмет впервые за долгое время обогнал по популярности физику (151 тысяча), по информатике (116 тысяч), по химии (более 106 тысяч). Низкие по популярности оказались литература – 62 тысячи, история – 22 тысячи, география – 21,5 тысячи. Среди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ов лидирует английский язык, затем идут немецкий и французский.

Ранее стало известно, что основная волна сдачи ЕГЭ в 2021 году начнется 31 мая с экзаменов по географии, литературе и химии. Экзамен по русскому языку планируется провести в два дня – 3 и 4 июня.

'사랑하는 당신에게' 행사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개최

러시아 지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세계 여성의 날을 즈음하여 '사랑하는 당신에게'라는 행사를 펼쳐 오고 있다. 이 행사의 일환으로 '우리 함께' 활동의 자원봉사자들이 도심의 공원들을 비롯한 소공원, 기차역, 지하철역, 광장 및 산책길에서 여성들에게 꽃을 선사했다.

올해 사할린주도 예외는 아니었다. 명절을 앞두고 '우리 함께'본부 자원봉사자들이 의료 분야의 종사자들에게 700송이의 꽃을 선사했다. 3월 8일 유즈노사할린스크 공항에서는 도착한 여성들에게 자원봉사자들이 환한 미소와 밝은 마음으로 꽃다발 전하며 맞이했다.

매해 이 행사는 '우리 함께'활동의 참가자들, 의료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연합회, 사할린주 청년사업청이 주최했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은 공항의 직원들과 친지를 배웅하는 사람들에게도 축하했다고 청년사업청 홍보부가 전했다.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овели акцию "Вам, любимые"

Уже много лет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оссии проходит акция "Вам, любимые", приуроченная к Международному женскому дню. В её рамках добровольцы акции "МыВместе" дарят женщинам цветы на вокзалах, станциях метро, бульварах, площадях и в скверах, а также в городских парках.

В этом году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не стал исключением. В преддверии праздника волонтеры штаба "МыВместе" вручили более 700 цветов работникам медицинской сфер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 8 марта женщин, прибывающих в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в аэропорту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стречали добровольцы с букетами цветов, яркими улыбками и бодрым настроением.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акции ежегодно выступают местное агентство по делам молодежи, добровольческие объединения, волонтеры-медики и участники движения "МыВместе".

Волонтеры также поздравили тех, кто провожал своих родных, и работников аэропорта,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агентства по делам молодежи.

(8면에 계속)

사할린주 한인협회: 모든 사할린한인들에게 이중국적 허용 문제 추진

지난 6일(토) 유즈노사할린스크 시 한인문화센터에서 사할린 한인 문제로 시민들이 모였다. 사실 주 한인협회(회장 박순옥) 측에서 이날 사망한 1세 사할린동포들의 자녀들에 관한 문제로 발의 그룹을 결성하기 위해 활동가들이 모이기로 했는데 한 사람이 허락없이 주 한인협회 명의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날 한인문화센터에 150여 명이 찾아왔다.

회의를 시작한 박순옥 회장은 최근에 악플과 좋지 않은 전화가 와서 사할린주 한인협회 활동가들을 괴롭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한다고 표명했다. 그는 이날 찾아온 2세들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는 잘 나타나지 않다가 이제 와서 '몇 년 전에 사할린 한인 단체장들이 일본에 가서 뭐 했느냐?' 등 물어보고 있다."고 했다. 박 회장은 여러 신문을 보여주면서 "일본에 가서, 한국에 가서 사할린 한인 문제를 내세웠을 뿐이고 이에 대한 기사들이 러시아, 한국,일본 신문에 실렸다."고 말했다.

현재는 다같이 힘을 모아 사할린 한인들의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현재 시행책이 옳지 않다고 하며 박 회장은 영주귀국 대상으로 사망한 1세들의 자녀들도 포함되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모든 회의 참가자들이 동감했다. 박 회장은 오는 4월에 특별법 시행과 관련 내용을 한국 민간단체, 그리고 변호사들과 회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하나는 주 한인협회가 처음부터 추진하는 것은 사할린한인들에게 복수국적이 아니라 이중국적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것은



양국 (러시아와 대한민국) 정부가 합의해야 하는 문제이다. 주 한인협회 측에서 이 방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이 문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박순옥 회장이 전했다.

그는 동포들이 방해하지 말고 힘을 합쳐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박 회장은 사할린동포특별법에 관한 기사, 영주귀국 사업에 대한 자료, 그리고 이와 관련 광고는 새고려신문에 게재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 같은 정보는 새고려신문에 실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언권을 가진 김원배 어르신은 '솔데없는 말을 하지 말고 열심히 노력하는 주한인협회 사람들을 정성껏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할린 한인 문제로 의지가 강

한 이채인 2세 동포는 간단히 특별법 제정의 역사를 알리고 특별법이 모든 사할린동포들을 위한 법이 아니란 것을 강조해 한국 정치인들을 비판했다.

김원철(김외철) 사할린주 한인 여성회 회장은 2세의 권리에 대해 이야기했다. 특히 이미 사망한 부모들의 자녀들이 억울하다고 표명했다. 그는 영주귀국과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2세들의 입장을 분명히 전했다.

회의에서 2세를 비롯한 모든 사할린 한인들의 문제 해결을 추진하는 발기그룹을 결성하기로 하고 이 그룹에 박순옥 주한인협회 회장을 비롯 김원철 여성회장, 이채인 2세 동포 등을 추천하기도 했다.

(취재: 배순신 기자)

지난 2월 사할린주 물가 상승률 0.4%

2021년 2월 사할린주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00.4%(2020년 2월에는 100.3%)에 달했다. 한 달 만에 식료품은 0.8%, 서비스는 0.4% 올랐고 비식품 품목은 사실 지난달 수준에 머물렀다.

과일 및 채소 품목의 가격도 상승한 가운데 양배추 28.4%, 생오이 17%, 바나나 7.6%, 비트 6.1%, 감자 5.9%, 당근 3.8%, 양파 3.7%, 오렌지 2.8%, 레몬 1.6%가 올랐고 반면 토마토는 9.3% 가격이 하락했다.

파스타와 곡물 제품에서는 세몰리나가 2.7%, 메밀이 1.2%로 가격이 상승했고 이와 동시에 좁쌀은 2%, 고급 마카로니는 1.2%, 통보리와 귀리는 1.1%, 쌀은 0.6% 가격이 하락했다.

그외 식료품 중에서 냉장 및 냉동 닭은 5%, 가공 치즈는 3.4%, 지방 2.5-3.2% 함유의 살균 우유는 2.1%, 쇠간 2.1%, 고급 빵 및 제빵은 1.4%, 천연 원두 커피 및 원두가루는 1.1%, 해바라기유와 버터 1.1%, 달걀 0.7%, 쇠고기 및 밀가루는 0.5% 가격이 상승하였다.

이와 동시에 품목 따라 평균적으로 가격이 하락한 제품은 설탕이 2.4%, 통생선 및 손질된 생선(연어 제외)이 1.5-1.8% 하락했다.

비식품군 목록에 든 제품들 중 가격이 상승한 제품들은 유아용 구두가 2.9%, 성인용 배낭 2.2%, 수건 1.6%, 국산 및 외제 신차량 0.7-1.1%, 담배 제품은 0.8% 올랐다.

생활 필수 의약품들의 가격 상승이 기록된 가운데 판크레아틴 소화제, 아르비들, 클로로헥시딘, 암브록솔, 아목시실린은 0.5 - 4.9% 올랐고, 동시에 가격이 하락한 약품들은 스프라스틴, 비소프로롤, 빈포세틴, 드로타메린, 베로귀피론, 오셀타미비르의 경우 1.7- 4.2%내렸다.

디젤 연료의 평균 가격은 한 달 만에 0.1% 올라 리터당 평균 57.87루블이고, 차량 휘발유는 3.4%(1리터당 56.65루블) 올랐고 그중 AI-92는 4.3%(리터당 54.09루블), AI-95는 3.3%(리터당 56.94루블), AI-98은 2.0%(리터당 61.63루블)로 가격이 상승했다.

이와 동시에 추동 용품 중 가격이 하락한 제품은 아동용 병어리장갑, 남성 부츠, 천연가죽 여성용 겨울 부츠, 유아용 보온 상하복, 여성 모피 코트, 유아용 방수 잠바가 1.4% - 8%까지 내렸다.

가전제품 중 가격이 하락한 제품들은 재봉틀이 2.4%, 다리미와 전기 온도계와 가습기가 3.5%, 진공 청소기 3.9%, 블렌더기와 믹서기가 4.3%로 하락했다.

서비스군의 가격이 상승한 가운데 세탁이 9.1%, 법률 서비스가 7.9%, 이코노미 클래스 항공권이 3.7%, 수의학 서비스 3.6%, 단순 소포 배송 3.1%, 경차 운전 초보 과정 2.1%, 의료 서비스는 2%로 상승하였다. 물가지수의 변동으로 기초식품세트의 가격에도 영향을 주었다. 기초식품세트의 가격은 기초식품들의 소비자 가격 수준의 지역적 차별화를 반영하고 있다. 러시아에서 전반적으로 서민들이 가장 자주 소비하는 기초식품군으로 설정된 품목 세트는 33개이다. 기초식품세트 가격은 2021년 2월 말 사할린주에서 평균 월 6,424.28루블로 한 달 만에 1.3% 올랐다. 유즈노사할린스크 기초식품세트 가격은 6,164.56루블리, 코르사코프는 6,234.80루블리, 포로나이스크는 6,850.44루블리, 오후는 7,313.82 루블리라고 사할린 통계청이 전했다.

인터뷰 최 빅토리아, 사할린 한인 을 소재로 단편 집필

(2면의 계속)
- 몇 년 전에 치매 예방으로 글을 통해 노인들을 위한 연수와 정도 실행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예방법인가요?

- 글쓰기는 그렇게 특별한 재능은 아닙니다. 옛날부터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인 할머니에게 어린시절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하면 할머니가 정말 많은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걸 한번 적어보세요. 글 작성법은 치매 예방법으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일본 연구자들은 글을 작성할 때 장기 기억력을 담당하는 사람의 뇌 일부가 활성화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예방법을 이용해 한인문화센터에서 할머니들을 위한 써클 수업을 해보았지요. 이에 박순옥 사할린주한인협회 회장이 많이 협력하셨어요. 그때 다섯 번 정도 수업을 했는데 할머니들이 회상기를 쓰셨습니다. 러시아어를 쓰실 줄 아

시는 할머니들이 이걸 얼마나 잘 하셨는지요. 이 모든 이야기를 취재하고 수집해서 책으로 편찬했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 현재 가장 좋아하고, 귀중하게 생각하는 책은요?

- 딱히 가장 좋아하는 책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고전 명작들을 다시 읽는 것이 정말 나름 재미가 있어요. 지난 여름에는 «전쟁과 평화»를 다시 읽었거든요. 이 책을 학창시절 학교에서 읽을 때는 지루했던 걸로 기억해요.

- 좋아하시는 표현 또는 슬로건은 있나요?

- 좋아하는 표현이나 슬로건은 없어요. 우리는 변해가고 있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와 이상도 변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믿고 삶에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어떤 성격이 마음에 드십니까?

- 전에는 어떤 면이 좋고, 어떤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지 아마 확실하게 대답을 했을텐데요. 그런데 나 이 들수록 약점이 없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각 사람은 장점이 있다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람을 열려 있는 마음으로 대하면 그 사람은 자신의 더 좋은 모습을 펼쳐보일 겁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전에 제가 여행을 많이 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기도 했는데 이들은 정말 놀라운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었어요.

- 요즘도 창작에 집필하고 계신지요?

- 네, 지금 사할린 한인들에 대한 책 집필을 마무리 중입니다. 이 책은 다큐멘터리는 아니지만 작업을 할 때 사할린에 정착하는 역사에 대한 책을 읽느라고 주 도서관에서 수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책을 쓸 때 사할린 한인 연구로 잘 알려진 아나톨리 쿠진, 율리야 진, 박승의 학자들의

책들이 제 책꽂이에 있었습니다. 진 율리야 역사학자는 저의 책에 있는 역사적 부분 수정에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책의 여주인공은 소련시절에 자랐고, 페레스트로이카와 소련 붕괴의 암울했던 시기도 이겨내고, 현재는 새로운 러시아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할린동포인 그의 삶을 통해 1세 할머니 할아버지의 삶을 담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이죠.

이 책의 초안을 김 나탈리아 작가(유명 러시아 음유시인 김 율리의 딸)에게 보여주었는데 반응이 따뜻했습니다. 기뻐요.

지금은 사할린한인 역사가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이에 따라 영주귀국 대상이 확대되면서 또 다시 이산가족이 생기게 됩니다. 저희 같은 2세대에게는 영주 귀국하신 부모의 자녀로서 귀국할 권

리를 주고 자신의 자녀를 두고 떠나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걸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편으로는 부모들과 살 수 있지만 또 다른 편으로는 이산의 비극이 생기는 거죠. 이런 정치적인 해결책으로 가족을 이산시키는 것이 얼마나 비인간적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부모들이 자녀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지? 왜 모든 사람들에게 가족을 이산시키지 않고 귀국할 권리를 주지 않는지?

-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등단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출간될 책이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 저의 단편소설들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저자로서 책 한 권을 견본으로 받았기 때문에 모두에게 나눠드릴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이 책은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РООСК: Будем продвигать вопросы двойного гражданства

6 марта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вновь собрались в стенах корейск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центра. В этот раз участниками встречи стали в основном представители 2-го поколения, родители которых умерли, не дождавсь репатриации, либо умерли, уже вернувшись на Родину. И то, что эти люди не смогли стать получателями поддержки в Проекте поддержки в переселении на ПМЖ и обустройстве на начальном этапе, несомненно, несправедливо на их взгляд.

Надо отметить, что руководство РООСК не планировало организовывать собрание для широких масс (было более 150 чел.), предполагалось собрать активистов, из которых можно организовать инициативную группу, которая бы занималась продвижением решения вопросов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2 поколения, а также вопросами двойного гражданства. Однако некто, дал от имени РООСК объявление в социальных сетях, и собрание приобрело несколько другие масштабы.

Свою речь президент РООСК Пак Сун Ок начала с негативных моментов, которые мешают нормальной конструктивной работе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А именно: сплетни, непроверенные объявления, несправедливые обвинения, которые выкладываются в соцсетях, на чатах мессенджеров и просто не дают нормально заниматься работой в офисе. А сегодня ее через край, т.к. вновь и вновь приходится рассказывать людям об условиях и порядке переселения на ПМЖ. Президент РООСК подчеркнула, что организация ведет планомерную работу по вопросу гражданства, чтобы каждый сахалинский кореец имел право на двойное, а не второе, гражданство. И вопрос двойного гражданства должен решаться на уровне правительств двух стран – России 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Организация также собирается вести работу по 2-ому поколению. Чтобы дети умерших родителей (1-ое поколение), тоже имели право на ПМЖ. Запланированы консультации с общественниками и юристами-адвокатами из Южной Кореи.

Выступающие выбрали несколько человек в инициативную группу, которая сформирует окончательный список группы и начнет работу по продвижению вышеуказанных моментов.

Виктория БЯ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1-е полугодие 2021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91 руб. 85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Тел.: 50-00-50; 43-31-31

Герои произведений Виктории Цой –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Как мы уже сообщали, три рассказа сахалинки Виктории Цой опубликованы в сборнике рассказов «Ризома. Рассказы не для всех». Наш корреспондент Виктория Бя побеседовала с начинающим литератором.

- Еще раз поздравляю с выходом в свет ваших первых рассказов. Для начала расскажите немного о себе.

- Я родилась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1966 году. Закончила Новосибирский электротехнический институт по специальности инженер-экономист, после института недолго работала экономистом. Когда началась перестройка, мой папа организовал бизнес по поставкам продуктов из Южной Кореи и ему понадобился декларант - человек, который оформляет документы для таможни. Я закончила специальные курсы в Ленинграде и до сих пор работаю в этой сфере. Мне очень нравится моя работа. Особенно интересно работать с нефтегазовыми компаниями, когда приходится изучать сложные технические термины и читать о новых технологиях. Мне даже пришлось выучить английский язык, чтобы вести переписку с партнерами.

- Как давно Вы пробуете свое перо? И вообще, увлечение чтением, литературой – откуда это? Какие увлечения помимо литературы сопровождают Вас по жизни?

Читать я любила с детства, я думаю, как и многие мои сверстники. Помните, как раньше гонялись за библиотекой Всемирной литературы? Читала много. Как почти все девочки-подростки вела дневник, но это не было чем-то особым, просто детские переживания.

С началом взрослой жизни, с замужеством и появлением детей времени на чтение стало меньше, но в отпуске и в путешествиях я всегда очень много читала и читаю.

Когда дети вырастают и уезжают из родительского дома, появляется больше времени на себя, на свои увлечения. Я ходила на йогу, освоила горные лыжи, каталась на кайте, практиковала медитации – чего только не пробовала!

В 2019 году случайно наткнулась в интернете на сайт «CWS – on-line литературные мастерские». Я купила трехмесячный курс и начала заниматься. Неожиданно для меня куратор курса писатель Мария Кузнецова-Чертанова сразу спросила – где я училась писать и была удивлена, узнав, что я никогда не занималась писательством. Атмосфера на курсе была очень творческая, и я быстро поняла, что мне это нравится. Я даже стала вставать в 6 утра, чтобы перед работой успеть сделать очередное домашнее задание.

Знаете, есть такая теория о 10000 часах? Что любой может достичь высокого уровня в чем угодно, если посвятит этому десять тысяч часов, а проще говоря – чем больше ты работаешь, тем лучше это получается и тем больше удовольствия это доставляет. Я много времени посвящаю своим текстам, это важная часть моей жизни теперь.

- Знаю, несколько лет назад Вы озаботились проблемой наших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1-го поколения, уехавших на ПМЖ в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Некоторые стали возвращаться в Россию, в силу возраста и болезней их родные хотели, чтоб они были рядом...

Мои родители Бак Ян Ги и Бак Ок Бун живут в Инчоне с 2008 года. И первый мой рассказ был о них и о нас, детях, которые по воле судьбы разлучены с родителями, искренне веря, что так будет лучше. Но время показывает, что жизнь, пусть самая комфортная, часто не приносит счастья, если живешь вдалеке от семьи, от детей, если не видишь, как подрастают внуки. Многие мои сверстники понимают это сейчас и каждый для себя сам решает, как поступить в ситуации, когда родители становятся беспомощными, когда нужно принимать решение о том, где и с кем они будут жить и как закончат свою жизнь.

- Ваш рассказ «Дорога к бабушке» завоевал второе место в конкурсе эссе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организованном нашей газетой. Расскажите, пожалуйста, как родился сюжет рассказа. Он очень тронул наших читателей, а также жюри конкурса.

- Я очень благодарна вашей газете за тот конкурс. Я помню, как прочитала условия конкурса и подумала, о чем же я хочу написать. Почему-то вспомнилась моя бабушка, потом конечно же родители. Моя старшая дочь почти каждый день мне звонит, на экране телефона я вижу своих внуков, живущих очень далеко. Весь этот калейдоскоп и навел меня на идею рассказа. Он не придуман, он просто о том, что мы все чувствуем сейчас.

- Очень приятно, что и в последующем Вы опубли-



ковали в нашей газете несколько своих рассказов. Ваши герои –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с чем это связано? Откуда черпаете сюжеты?

- Мне не нужно придумывать специально сюжеты, я просто могу поговорить с подругой о ее заботах или во время поездки в Инчон на перроне метро послушать о чем говорят наши сахалинские бабушки и сюжеты появляются сами в голове.

-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момент Ваше самое любимое и дорогое Вам произведение.

- У меня нет самой любимой книги, но это отдельное удовольствие – перечитывать классику. Этим летом перечитала «Войну и Мир», и я помню, каким скучным был для меня этот роман в школе.

- Помню, несколько лет назад Вы в порядке профилактики болезни Альцгеймера пытались заниматься с пожилыми людьми тренировкой памяти посредством литературы. Расскажите об этом методе, пожалуйста.

- Писательство – это не какой-то особый дар, люди издавна рассказывали друг другу истории и спросите у любой корейской бабушки о детстве – и она вам расскажет на целую поэму, только успевай записывать. Метод писательства используется и для профилактики болезни Альцгеймера. Японские ученые выявили, что во время сочинительства у людей активизируются участки мозга, отвечающие за долговременную память. Этот метод я пробовала применить, когда провела несколько занятий на базе Корейск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центра. Оксана Владимировна Пак (Пак Сун Ок - президент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помогла мне с организацией кружка и мы провели пять занятий, во время которых бабушки писали свои воспоминания. Я была поражена тому, как здорово они справлялись с этим. Было бы здорово собрать и издать сборник воспоминаний об их молодости.

- Ваше любимое изречение, либо девиз по жизни.

- У меня нет любимого изречения, либо девиза. Все мы меняемся и развиваемся, как меняются и наши идеалы и цели, и я думаю, что главное – это верить в себя и быть благодарным жизни.

- Какие черты характера в человеке импонируют Вам?

Раньше я бы перечислила без запинки, что мне нравится или не нравится в людях. Но теперь, с годами, я понимаю, что нет людей без недостатков, в каждом человеке есть свои достоинства. Если разговаривать с людьми с открытым сердцем, то они раскрывают свои лучшие черты. Я много путешествовала до пандемии и у меня было немало встреч, когда совершенно незнакомые люди делились со мной потрясающими историями из своей жизни.

- Над чем Вы сейчас трудитесь?

Сейчас я работаю над книгой о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ах. Это не документальная книга, хотя во время работы над ней я много времени провела в областной библиотеке, читая об истории заселения Сахалина. Книги А.Т.Кузина, Юлия Дин, Пак Сын И – все эти авторы стояли у меня на полке, когда я писала ее. Юлия Дин помогла мне с корректурой исторических глав книги, спасибо ей за это.

Моя книга о героине, выросшей в СССР, пережившей бурные годы перестройки, распад страны и живущей сейчас в новой России. Ее жизнь переплетается с жизнью ее дедушек и бабушек из первого поко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как в общем-то и у всех нас. Я надеюсь закончить работу над ней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Первый вариант книги прочитала редактор Наталья Ким, кстати, дочь известного барда Юлия Кима, и я получила от нее очень теплый отзыв, чему невероятно рада.

Сейчас мы переживаем новый этап в ис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ышел спецзакон о переселении на ПМЖ и вновь семьям предстоит разлука. Мы, второе поколение, можем уехать к родителям, оставляя здесь детей, работу, друзей. Не знаю, как мы это все перенесем.

Конечно, с одной стороны это дар для нас – иметь возможность жить с родителями,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 это вновь людские трагедии. Мне кажется, в этих решениях разделять семьи, есть что-то бесчеловечное. Почему родители должны выбирать между детьми? Почему нельзя дать людям выбор и предоставить право уехать на историческую родину семьям, не разделяя их?

Еще я думаю о том, как мы будем с родителями жить под одной крышей, ведь я разведена и по мысли корейских законодателей не имею права жить отдельно. Я не жила с родителями со школы, у них свой сложившийся уклад жизни, свои привычки. Это будет непросто для всех нас начинать новую жизнь таким образом.

- Большое спасибо за интервью. Желаем Вам творческих успехов, ждем с нетерпением Вашу книгу.

- Спасибо вам за внимание к моим рассказам. Простите, что не могу подарить сборник всем желающим, я получила один авторский экземпляр и отвезу его к родителям в Корею.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В РК обнародована новая схема социального дистанцирования

5 марта органы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РК обнародовали новую схему социального дистанцирования в рамках борьбы с пандемией COVID-19. Пятиступенчатую систему предложено заменить четырёхступенчатой, что позволит предприятиям малого бизнеса более гибко реагировать на изменения эпидемиологической ситуации. Развлекательным заведениям повышенного риска будет предписано приостановить свою деятельность лишь в том случае, если будет введён самый строгий, четвёртый уровень социального дистанцирования. Уровни будут применяться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количества подтверждённых случаев COVID-19 в неделю на 100 тыс. человек населения. Если показатель меньше 0,7, то будет действовать первый уровень, если больше чем 3,0 – четвёртый уровень. В рамках первого уровня продолжается действие масочного режима, а социальная дистанция между людьми должна превышать 1 метр. В рамках второго уровня запрещены мероприятия с участием более чем восьми человек, а на каждого посетителя развлекательных заведений должно приходиться не менее 8 кв. метров площади. Когда вводится третий уровень, запрещаются мероприятия с участием более чем четырёх человек, и людям советуют оставаться дома. Четвёртый уровень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запрет на мероприятия с участием более чем двух человек после 18 часов, а предприятия торговли могут работать только до 21 часа. Данная схема может быть введена до конца марта после обсуждения с заинтересованными ведомствами.

РК и США договорились о разделении расходов на оборону

В ходе личной встречи, проходившей в Вашингтоне с 5 по 7 марта, представители РК и США достигли принципиальной договорённости по содержанию 11-го Соглашения о специальных мерах. Оно определяет доли расходов сторон на содержание американских войск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8 марта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К, добавив, что документ будет парафирован после завершения внутренних процедур, предусмотренных в обеих странах. Других подробностей не приводится. Позднее представитель госдепартамента США подтвердил, что соглашение, предусматривающее «значительное увеличение взносов» со стороны РК, подтверждает, что двусторонний альянс является стержнем мира, безопасности и процветания в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и Индо-Тихоокеанском регионе. Срок действия предыдущего Соглашения о специальных мерах истёк в конце 2019 года. В марте прошлого года стороны предварительно договорились об увеличении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вноса на 13%. Договорённость была отклонена тогдашним президентом США Дональдом Трампом, который потребовал от Сеула выплачивать 5 млрд долларов в год, что означало бы более чем пятикратное увеличение южнокорейской доли расходов.

РК и США приступили к совместным учениям

8 марта РК и США приступили к совместным весенним военным учениям, которые в условиях пандемии COVID-19 проходят в сокращённом виде. Как сообщили в Объединённом комитете начальников штабов вооружённых сил РК, учения, которые проводятся в формате компьютерного моделирования, продлятся до 18 марта. В них принимают участие минимальные составы воинских контингентов двух стран. Как сообщил представитель штаба, цель учений –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ть готовность к поддержанию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усилий по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и установлению мира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В прошлом году Сеул и Вашингтон отменили весенние учения из-за начавшейся пандемии COVID-19, а летние учения провели в сокращённом виде.

РК на 11-м месте по числу товаров-лидеров мирового рынка

В 2019 году РК производила 69 видов товаров, которые являлись лидерами мирового рынка, заняв по этому показателю 11-е место в мире, сообщили 7 марта в Корейской ассоциации международной торговли. На первом месте Китай – 1.759, на втором месте Германия - 654, на третьем месте США - 520 видов товаров. 27 южнокорейских товаров-лидеров мирового рынка относятся к химическ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18 - к металлургической. Впервые в список товаров-лидеров мирового рынка вошли твердотельные накопители (SSD)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объём продаж которых составил 10 млрд 100 млн долларов.

В РК принят пятилетний план управления рыбными ресурсами

8 марта министерство морского и рыбного хозяйства РК обнародовало пятилетний план эффектив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рыбными ресурсами. Согласно плану, их совокупный объём в прибрежных водах увеличится к 2025 году до 4 млн тонн, что на 28% выше нынешнего оценочного объёма в 3 млн 130 тыс. тонн. Будет ужесточён контроль над уязвимыми видами морских ресурсов, введён запрет на лов мальков, а рыболовное снаряжение будет более безопасным. К 2022 году в 50 прибрежных зонах будут установлены рыболовные сооружения. В прошлом году в РК выловлено 930 тонн рыбной продукции.

(RKI)

В Южной Корее будут сажать в тюрьму за фейки про вакцину от COVID-19

Полиц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ыявила почти триста распространителей недостоверной информации о вакцине против коронавируса, подчеркнув, что все они так или иначе будут наказаны. Самым злостным нарушителем грозит тюремное заключение до семи лет.

Медики и эксперты при этом призвали население не отказываться от стартовавшей в стране кампании вакцинации, подчеркнув, что все используемые виды препаратов изучены и признаны безопасными.

Власти Южной Кореи на днях обнародовали некоторые результаты объявленной ими "войны с фейками", касающимися вакцин от COVID-19.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выявлены 279 человек, которые обвиняются в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и заведомо ложной информации о препаратах против коронавируса. В отношении еще восьми фактов ведется расследование и высока вероятность, что общее число тех, кто понесет наказание за подобные преступления, составит около трех сотен человек.

В Агентстве национальной полиции РК напомнили, что по действующему в стране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у за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ложной информации и слухов предусмотрено наказание в виде тюремного заключения длительностью до семи лет или крупный штраф до 50 миллионов вон (ок. 44 тысяч долларов).

Стражи порядка привели несколько примеров наиболее нелепых слухов, которые тем не менее стали широко циркулировать в интернете, что заставило полицию со всей серьезностью отнестись к распространителям. Так, одна женщина в возрасте более 60 лет была задержана в городе Инчхон, когда она расклеивала на столбах и автобусных остановках листовки. В них говорилось, что в вакцине от COVID-19 содержатся специальные чипы, которые попадают в организм и затем уничтожают человека.

Вообще, судя по циркулирующим небылицам, версия о "чипах, вживляемых вместе с вакциной", является одной из наиболее популярной среди тех, кто выступает против вакцинации. Различия есть в обещаемых последствиях. Согласно одним, потом эти "чипы из вакцины" будут использоваться для контроля за сознанием человека и чтением его мыслей при помощи вышек связи нового поколения 5G, согласно другим - люди должны превратиться в зомби, которыми смогут управлять дистанционно. Есть и версии о том, что все это "проделки инопланетян", которые пытаются поработить людей.

Менее "космические" варианты небылиц, с которы-

ми столкнулись корейские полицейские - рассказы об "использовании зародышей детей для изготовления вакцины" или утверждения, что препараты ведут к быстрому развитию болезни Альцгеймера.

Власти Южной Кореи в очередной раз напомнили, что все эти небылицы не имеют абсолютно никакой достоверной базы, и предупредили, что будут самым активным образом выявлять и наказывать распространителей подобной информации. "Мы обращаемся к согражданам с просьбой помочь нам выявлять и пресекать подобные слухи. Пожалуйста, сообщайте нам, если вы столкнетесь с фактами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ложной информации о вакцине от COVID-19. Кроме того, мы также предупреждаем, что будем жестко пресекать все попытки получить деньги с доверчивых людей, обещая "быстро и вне очереди" организовать вакцинацию", - заявили в Агентстве национальной полиции РК.

Представители Агентства по борьбе с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м инфекционных заболеваний РК, известные врачи и профессора также один за другим выступили с обращениями, подчеркнув, что используемые в стране вакцины признаны безопасными и не несут угрозы для здоровья.

Программа вакцинации в Южной Корее стартовала с 26 февраля и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общее число вакцинированных приближается к 300 тысячам человек. Это лишь первый этап вакцинации, когда прививаются лишь медики и постоянцы учреждений для пожилых и слабых людей. Для большинства жителей РК вакцинация станет доступна не ранее июля этого года. Пока в Корею используется две вакцины - AstraZeneca и Pfizer, всего же будут одобрены четыре препарата.

Власти РК каждый день сообщают статистику о разного рода побочных эффектах от вакцины. Так, по данным на полночь 6 марта в стране были вакцинированы 296 380 человек, что составляет 0,57 процента населения страны. Среди тех, кто привился, разного рода побочные эффекты были выявлены у 2883 человек, что менее одного процента. В подавляющем большинстве случаев это незначительное недомогание, боли в голове, мышцах, головокружение и прочее. Среди тех, кто вакцинировался, шесть человек скончались, но все они ранее страдали от серьезных заболеваний. Как подчеркнули корейские врачи, они тщательно изучили каждый летальный случай, но пока не смогли доказать, что вакцина каким-то образом ослабила организм скончавшихся.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К, Сеул)

Правительство вводит меры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чих

Иностранные граждане, занятые в фермерстве и рыболовстве в Южной Корее, смогут получить медицинскую страховку сразу по прибытии в страну, сообщили в министерстве труда и занятости.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ъявило о комплексе мер по улучшению условий труда иностранцев, разработанных совместно с министерствами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и океанов и рыболовства.

Меры приняты после того, как иностранный гражданин был обнаружен мертвым в одной из теплиц в декабре.

Новые меры позволяют иностранным гражданам обращаться за медицинскими страховками сразу по прибытии в страну, которые ранее должны были ожидать этого в течение шести месяцев, сказали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Они также дают право на некоторые льготы, такие же, как и у местных фермеров и рыбаков, включая компенсации до 50 процентов по медицинскому страхованию.

Более того, иностранные граждане теперь смогут более легко менять место работы.

Согласно действующим правилам, иностранцы могут менять место работы пять раз в пять лет в случаях, когда работодатели прерывают их контракты.

Правительство дает шесть месяцев бизнесу фермерства и рыболовства, предоставляющего иностранцам работу в теплицах и других временных структурах, по улучшению условий их труда и быта.

Если они не выполнят эти требования, их разрешения на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о будут отозваны и работники вправе будут переходить на новые места работы.

ИА РУСКОР

Число новых фирм по недвижимости растёт как на дрожжах

Число вновь созданных компаний в Южной Корее выросло на более 15 процентов в 2020 году, несмотря на пандемию коронавируса.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1,48 миллиона новых фирм было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о в прошлом году, на 15,5 процента больше, чем годом ранее, свидетельствуют данные министерства малых и средних предприятий.

Министерство связывает рост с увеличением числа фирм по недвижимости в связи с новыми требованиями по регистрации бизнеса, связанного с арендой помещений.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390 055 торговых фирм было создано в прошлом году, на 17 процентов больше, чем годом ранее, а число новых технических компаний выросло на 3,8 процента до 228 950.

И наоборот, число ресторанов и других фирм гостеприимства сократилось на 10 процентов до около 166 500, а число фирм индивидуального обслуживания упало на 4,7 процента до около 54 000.

Число фирм из одного человека составило 1,36 миллиона в прошлом году, на 15,8 процента больше, чем годом ранее и составив 91,6 процента от общего числа, свидетельствуют данные.

ИА РУСКОР

"Полигранд"

Партнер,
созданный для Вас!

Тел.: 42-49-54, 42-49-89

Региональный чемпионат «Молодые профессионалы» соберет на Сахалине почти 600 участников

Конкурс рабочих специальностей стартует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в шестой раз.

В соревнованиях по 89 компетенциям примут участие студенты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учащиеся школ и учреждений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области.

— Чемпионат WorldSkills Russia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тал знаковым событием в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м становлении ребят. Мы видим, как много усилий они прикладывают в подготовке к нему, с каким упорством доказывают умения во время испытаний, с каким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м азартом конкурируют друг с другом. Оценка конкурсантов ведется по международным стандартам трудовых навыков, и по итогам чемпионата мы отмечаем, насколько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 выросли ребята в теории и практике, — отметила министр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настасия Киктева.

Чемпионат в 2021 году отличается масштабным приростом компетенций — их количество увеличилось на 22 позиции. В числе новых направлений — «Добыча нефти и газа», «Сервис на воздушном транспорте», «Бетонные строительные работы», «Технология информационного моделирования BIM», «Социальная работа», «Бережливое производство», «Обслуживание авиационной техники» и «Ресторанный сервис».

— Задействовано 27 площадок по всему Сахалину. Впервые в этом году соревнования пройдут не только на площадках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но и на площадках партнеров, то есть в условиях, максимально приближенных к реальным. Так, например, конкурсанты компетенции «Сервис на воздушном транспорте» работают соревновательные модули в аэропорту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 отметила директор регионального координационного центра Наталья Журавлева.

Оценивать конкурсантов будут 443 эксперта — мастера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ого обучения, преподаватели и сотрудники сахалинских предприятий. Также за проведением чемпионата будут наблюдать 28 сертифицированных экспертов Союза «Молодые профессионалы (Ворлдскиллс Россия)».

Традиционно в рамках регионального чемпионата организована профориентационная программа для школьников. С 18 февраля ученики островных школ посещают с экскурсиями соревновательные площадки, знакомятся с конкурсантами и экспертами чемпионата, посещают мастер-классы и узнают секреты будущей профессии.

В рамках чемпионата также запланирована обширная деловая программа, которая будет посвящена теме обеспечения кадрами бизнеса. Ее участниками станут представители региональных органов власти, эксперты базовых отраслей развития экономики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руководители предприятий и организаций, общественные деятели. Кроме того, запланирована и международная сессия с участием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движения WorldSkills из Кореи, ОАЭ, Японии, Малайзии и других стран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региона.

Церемония открытия регионального чемпионата состоялась 11 марта в 14:00 в онлайн-формате.

Торжественная церемония закрытия состоится 19 марта.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закупает оборудование к новому пожароопасному сезону

Для лесных десантников-пожарных приобретут современные спусковые устройства, эффективные и безопасные. Их необходимое количество сейчас уточняется.

Это комплекты системы Кашевника, которые имеют самотормозящую роликовую систему. Устройство позволяет варьировать скорость спуска десантников-пожарных. Производитель дает гарантию на тормозной блок на 15 лет, шнур рассчитан на 700 спусков.

Эту новинку в числе других представители сахалинской авиабазы смогли оценить в селе Казанцево Шумского района Красноярского края. Там проходили ежегодные сборы парашютно-десантных пожарных служб. На совещании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отметили в числе лучших регионов страны по многим ключевым показателям. Например, в прошлом году островные лесные пожарные оперативнее коллег из других субъектов справились с огненной стихией.

В этом году на островах для борьбы с лесными пожарами будет использоваться новая техника, которую закупили в 2020 году в рамках федер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Сохранение лесов» нацпроекта «Экология». В эксплуатацию вводят 15 единиц техники (6 пожарных автомобилей, 3 грузовые машины, 6 малых лесопатрульных комплексов).

Разработаны планы тушения лесных пожаров во всех 17 лесничествах региона. В них, в частности обозначены: дежурство на наблюдательных пунктах, наземное и авиационное патрулирование лесного фонда, прием и учет сообщений о лесных пожарах. Также указано противопожарное обустройство лесов: наличие лесных дорог, посадочных площадок для авиации, просек, пожарных водоемов. Определены и сроки, в которые лесничества должны контролировать выполнение арендаторами лесных участков противопожар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ддержал идею молодеж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 планировочном районе для молодых семей

Губернатор принял участие в заседании молодеж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где обсуждались актуальные для жителей региона вопросы. На встрече с губернатором активисты рассказали, что многие сахалинцы предпочли бы не покупку квартиры, 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дома. Появилось предложение — выделить землю в пригород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и по сниженным ценам продавать там участки.

— Мне нравится эта идея. Я сам был молодым человеком и мечтал построить дом для своей семьи. Нужно проработать этот вопрос. Определить земельный участок, провести межевание, проложить коммуникации, заасфальтировать дороги, подготовить типовые проекты домов. Должен вырасти комфортный красивый поселок для людей, которые связывают свое будущее и будущее своих детей с островами,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Активисты молодеж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уже получили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е одобрение в региональном министерстве строительства. Подходящий земельный участок присмотрели на западном выезде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Там уже проведен газ, поблизости расположены автобусные остановки.

— Можно будет нарезать около 400 участков из расчета, что каждая семья получит не меньше десяти соток. Сегодня вопрос строительства жилья для многих упирается в высокую стоимость земли. Предполагается, что в нашем планировочном районе участки будут стоить в десять раз дешевле. А благодаря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й ипотеке молодая семья сможет обзавестись большим домом по цене квартиры, — рассказала Наталья Подпругина, лидер команды «Жилье молодым» в молодежном правительстве.

Команда Натальи активно помогает сахалинцам решать жилищный вопрос. С помощью активистов более 400 семей получили ипотеку на выгодных условиях и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е гектары. В телеграм-канале «Жилье молодым 2020» жители всех районов области могут получить консультацию в режиме 24/7. Специалисты помогают в оформлении документов, отвечают на юридические вопросы, рассказывают о мерах поддержки для островных семей. У канала уже более тысячи подписчиков.

Молодежн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было создано в августе 2020 года. Активные сахалинцы при поддержке старших коллег внедряют свои идеи не только в жилищной политике, но в сферах образования, культуры, бизнеса, IT, добровольчества и патриотического воспитания.

Первая в стране «Школа заказчика объектов капиталь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провела новый набор на Сахалине

Ее ученики изучают основы управления проектами, применения инструментов бережлив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и современных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систем, а также юридические нововведения в строительной сфере. Недавно вице-премьер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Марат Хуснуллин отметил, что опыт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 созданию такой школы нужно распространить на всю страну.

Среди участников проекта — сотрудники муниципа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которые курируют объекты капиталь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в своих районах, а также работники подряд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Преподаватели — представители СахГУ, специалисты из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и бизнес-сферы.

— Важно обучить это звено в строительной сфере, потому что именно заказчики отвечают за объекты в целом: за сроки исполнения и качество работ. Мы помогаем заполнить пробелы в знаниях, чтобы они могли грамотно выполнять свою работу, — рассказал специалист агентства по развитию человеческого капитал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лег Бэдэрэу.

Несколько дней ученики школы провели за партами СахГУ, где изучали теоретические дисциплины, а накануне — перешли к практике. На базе деловой игры «Фабрика процессов» они отработывали технологию бережлив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Учебная программа рассчитана на 72 часа.

— Эта деловая игра помогает понять, как эффективно контролировать строительные и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е процессы и делать так, чтобы они были прозрачными и эффективными. Мы предлагаем участникам организовать реальное предприятие, где есть различные специалисты. Задача — произвести 10 деталей за 20 минут. После каждой смены мы проводим совещание, обсуждаем проблемы и находим решение. Учим выявлять потери в процессах и то, как их можно устранить без финансовых вложений, — отметил директор департамента министер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 эффективному управлению регионом Александр Гоголин.

Впервые обучение заказчиков объектов капиталь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состоялось в конц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Программа разработана агентством по развитию человеческого капитала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и министерством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 эффективному управлению регионом, совместно с Сахалинским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университетом.

— Обучение произвело на меня большое впечатление. Я узнал много полезных инструментов, применимых в моей работе и познакомился с интересными людьми, настоящими профессионалами своего дела, — поделился участник из Южно-Курильска Олег Реймхе.

Следующий поток специалистов начнет обучение уже в середине марта. Организаторы планируют проводить занятия ежемесячно.

Сахалинцам и курильчанам предлагают стать волонтерами для поддержки голосования за объекты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Добровольцев набирают во всех регионах страны. Их задача — информировать жителей о проектах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которые выносятся на обсуждение. Инициативы, получившие наибольшую поддержку, реализуют в 2022 году. Через волонтеров также можно будет зарегистрироваться на платформе и проголосовать по номеру телефона.

Всероссийский конкурс лучших проектов создания комфортной городской среды проводится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Формирование комфортной городской среды»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Жилье и городская среда». Отдать свой голос в поддержку конкретного объекта можно будет с 26 апреля по 30 мая на специально запущенной онлайн-платформе — 65.gorodsreda.ru. Ее оператором выступает АНО «Диалог Регионы».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 голосование выставят 27 объектов в 10 районах. В частности, будет предложено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скверов «Дружбы» в Аниве, «Славы» в Долинске и «Авиаторов»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набережной в Невельске, пешеходной зоны в Макарове, городского парка в Северо-Курильске, зоны отдыха в селах Воскресенское, Новое и Восточное.

Чтобы стать частью команды волонтеров, нужно оставить заявку на сайте: <https://dobro.ru/event/10041785>. Регистрация завершится 22 марта.

— Комфортный город — это город, который отвечает всем потребностям своих горожан, который слышит и учитывает их мнение. Как можно больше граждан должны знать, что они могут влиять на городскую среду, определять направление ее развития. И здесь не обойтись без помощи волонтеров, которые всем сердцем любят свои города, — они расскажут про планы развития территорий, а также помогут проголосовать на самой платформе, — рассказал замминистра строительства и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го хозяйства РФ Максим Егоров.

— У волонтеров в проекте действительно большая роль. Они будут работать в МФЦ, торговых центрах, объектах культуры и других общественных местах. Всех добровольцев обеспечат планшетами для голосования. Поэтому с их помощью желающие смогут оставить свое мнение. Также у каждого объекта будет свой институт общественных кураторов — это те люди, которые будут объяснять, разъяснять и показывать, что конкретно будет делаться в каждом муниципалитете, — пояснил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АНО «Диалог Регионы» Алексей Гореславский.

Отметим,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каждый гражданин России старше 14 лет может отдать свой голос за одну из предложенных территорий или же за дизайн-проект уже отобранн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Это могут быть парки, набережные, скверы, улицы, площади и другие общественные территори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озобновили диспансеризацию жителей

В связи с улучшением эпидемиологической ситуации по COVID-19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сняли ограничения на проведение диспансеризации.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задействованы все ресурсы медучреждений для выявления заболеваний у людей на раннем этапе. За год планируется проверить здоровье у 264 тысяч человек.

С начала года, в режиме ограниченной диспансеризации медосмотры прошли около 22 тысяч островитян. Большая часть пациентов приходит к врачу с профилактической целью, чтобы не допустить развития заболевания. В некоторых случаях такая осторожность помогает спасти жизнь.

— В этом году уже выявили одну онкопатологию, при дальнейших исследованиях заболевание подтвердилось, пациент начал лечение. Не нужно запускать визит к врачу. Именно во время диспансеризации регистрируется много впервые выявленных заболеваний, о которых человек мог и не подозревать, — рассказала заведующая отделением вакцинопрофилактики поликлиники №4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Ольга Байдакова.

Порядок проведения диспансеризации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несколько этапов. На первом человек сдает анализы, проходит обследования, которые помогут выявить болезнь. При обнаружении опасных симптомов пациент будет направлен на второй этап для дообследования и лечения.

Жительниц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ветлана Инякина проходит диспансеризацию регулярно. Даже в прошлом году записалась одной из первых, до начала эпидемии коронавируса.

— Кто обо мне позаботится, кроме меня самой? Очень ответственно отношусь к здоровью, считаю, что проверка организма является главной профилактикой заболеваний, — поделилась женщина.

Пройти диспансеризацию можно в любой поликлинике по месту жительства. Приемы проводятся ежедневно. Для удобства жителей по средам в вечернее время и по субботам с утра выделено время для проведения единого дня диспансеризации. Такая форма позволяет пройти всех специалистов без больших временных интервалов.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러시아와 한국 XXI세기 문화 교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마트베예바 크세니야라고 합니다. 하바롭스크 태평양국립대학교, 사회인문대학 3학년생이고, 전공은 해외지역연구, 아시아 연구입니다. 러시아와 한국 XXI세기 문화교류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한국과 러시아 연방과의 외교관계는 1990년 9월 30일에 수립되었습니다. 올해로 30년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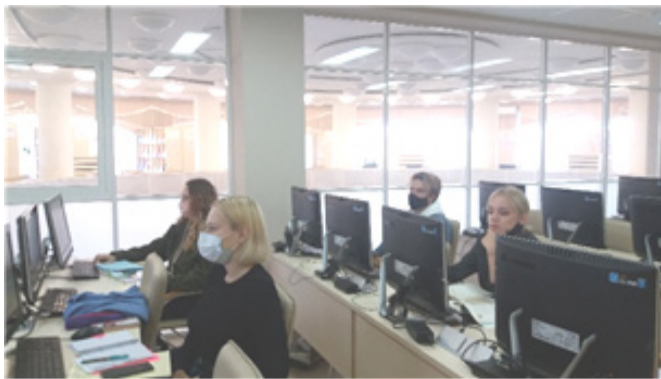
오늘날 양 국가는 한반도 문제를 평화로운 해결을 위한 국가적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이를 포함하여 안보, 경제, 교육, 과학기술 등 사실상 모든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것은 문화적 분야에서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XXI 세기에 문화 분야에서 활발하게 집중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발전하는 예로는 2012년에는 한국 순천시에서 일련의 공연 '시크릿 (Incognito)'이 열렸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러시아 극장

'람파'와 순천시극단이 참가했습니다. 러시아-한국프로젝트는 두 가지 언어로 만든 공연이었습니다. 공연은 전체 홀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많은 관중들이 배우들과 함께 기념 사진을 찍었습니다. 러시아 배우의 일행은 한국 극단과 따뜻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해 한국 순천시에서 극단이 러시아 극동지역 나홋카시에 와서 자신의 작품을 바탕으로 한 '늦은 행복'이라는 연극 공연을 했습니다. 희곡

'늦은 행복'은 연로한 부부관계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최근 흥미로운 이벤트가 일어났습니다. 2019년에 모스크바 국립발레단이 한국에서 많은 공연을 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백조의 호수'라는 발레 공연을 보았습니다. '백조의 호수'는 차이코



프스키가 아름다운 음악으로 쓰신 우아한 안무와 깃털처럼 가벼운 작품입니다.

물론, 관객들은 최고수준의 테크닉과 완벽한 연기기술, 그리고 무용의 깊은 의미까지 담아 표현한 연기력을 평가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문화적 교류가 러시아와 한국 양국 간 관계를 강화하고 한-러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한국과 러시아는 좋은 관계를 이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ТИХООКЕАН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Институт социально-политических технологий и коммуникаций
Специальность «Зарубежное регионоведение. Азиатские исследования», III курс
Матвеева Ксения

[우리말로 깨닫다]

동무를 그리다

우리말에서 '동무'라는 말은 수난을 겪은 말입니다. 친구라는 뜻이지만 언제부터인가 사상을 나타내는 말처럼 되어 선뜻 사용하기 어려운 말이 되었습니다. 인민이라는 말도 비슷합니다. 동무도, 인민도 남한에서는 금기어가 되었습니다. 북한의 한국어 교재를 분석하다가 재미있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서로의 이름을 묻는 장면이었는데, 북한의 표현은 '동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였기 때문입니다. 북한에서 한국어를 배워서 한국에 오면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조현용 (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제가 어릴 때는 가끔 동무라는 말을 친구 대신 쓰기도 하였으나 이제는 아예 동무라는 말을 쓰는 사람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동무라는 말이 아주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동무는 끈질기게 우리 속에 살아있습니다. 동무만 따로 안 쓰이지만 다른 말과 함께는 쓰이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말이 바로 어깨동무입니다. 이제 어깨동무는 친구의 느낌은 사라지고, 서로 어깨를 손으로 감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깨동무를 어깨 친구라고 바꾸면 아주 어색해집니다. 어깨 친구는 마치 조폭 같은 느낌마저 듭니다. 어깨가 조폭을 비유하기도 해서 그럴 겁니다. 어깨동무는 예전에 친한 친구들이 하던 행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요즘은 어깨동무도 잘 안 합니다. 행동도 세월을 따라 변한 것입니다. 이제 길에서 어깨동무하고 다니는 사람을 보기 어렵습니다. 취객이나 어깨동무를 할까요?

동무가 친구의 의미로 쓰이는 말에는 길동무가 있습니다. '길을 함께 가는 동무, 또는 같은 길을 가는 사람(표준국어대사전)'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말로는 길벗이 있는데 그야말로 동무가 벗인 셈입니다. 그런데 길 친구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길동무는 함께 길을 가는 친구이기도 하지만 나와 같은 길을 가는 벗이어서 느낌에 따뜻함이 있습니다. 서로 의지하고 위로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혼자서 하는 여행에도 그 나름의 맛이 있지만 아무래도 마음 맞는 이와 함께 하는 여행에는 파스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동무가 친구의 의미로 다른 말로는 말동무도 있습니다. 말동무도 다른 말로 말벗이라고 합니다. 말동무라는 말은 그야말로 말을 나눌 수 있는 친구입니다. 말동무가 필요하다든지, 말동무가 되어 준다고 하면 서로 외로운 마음을 달래 주는 일이 됩니다. 특히 힘들고 지친 사람에게 말동무는 귀한 친구입니다. 그렇게 심각한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도 아닙니다. 그저 세상을 사는 이야기를 담담하게 나누고, 가끔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건넩니다. 말동무는 내 말을 들어주는 귀한 벗입니다. 물론 나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는 벗입니다.

동무라는 말은 우리 속에서 거의 사라졌는데 길동무와 말동무라는 어휘 속에서 감정을 담아 살아있습니다. 문득 이은상 선생의 시에 박태준 선생이 작곡을 한 '동무 생각'이라는 노래가 생각납니다. '봄의 교향악이 울려 퍼지는'으로 시작하는 노랫말은 참다운 동무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청라언덕과 같은 내 맘에 / 백합 같은 내 동무여 / 네가 내게서 피어날 적에 / 모든 슬픔이 사라진다.'라는 가사에서 동무는 서로의 슬픔을 사라지게 만드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저녁 조수와 같은 내 맘에 / 흰 새 같은 내 동무야 / 네가 내게서 떠돌 때에는 / 모든 슬픔이 사라진다.'로 노랫말이 이어집니다. 청라언덕에 백합 같이, 저녁 조수에 흰 새 같이 서로 힘이 되고, 함께 어우러지는 동무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하루하루가 참으로 어려운 세상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야말로 말동무가 그리운 세상입니다. 쌓인 괴로움을 훌훌 털어 버리고 길동무와 긴 여행을 떠나고 싶은 하루입니다. 동무들과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길을 걸으며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모든 슬픔이 사라질 듯합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칭찬합니다!

제7탄, 사할린동포 부부

김춘웅 지질학 박사, 이순옥 아내

한국 생활에서 받은 은혜, 감사한 마음으로 봉사 시작
2014년 6월부터 8년째 적십자봉사회에서 급식 봉사

김춘웅 지질학 박사(남편/78세), 이순옥(아내/77세) 씨를 칭찬합니다!

2009년 12월 17일 한국에 온 두 부부는 "한국에 정착해 살면서 여러 단체에서 우리에게 보살펴 주시고 도와주면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항상 간직하고 살았다"고 말했다.

이어서 "2014년 6월에 천안시 적십자봉사회에서 작은 봉사부터 시작하자는 의미로 급식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적십자봉사회 천안지구협의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봉사관에서 매일(월~금) 점심도시락을 준비하여 봉사관에 오는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등 어려운 사람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해오고 있다.

특히 급식을 준비하는 손길이 많이 필요하지만 사할린 부부를 비롯해, 적십자봉사원들의 정성이 더해져 지금까지 무료급식 봉



김춘웅, 이순옥 부부

사를 계속 진행해오고 있다.

"우리도 봉사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남에게 도움 주고 싶습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때까지요."라며 활짝 웃는 김춘웅 박사와 이순옥 부부를 칭찬합니다!

(출처: 충남신문)

음성군, 찾아가는 문해교실 소통반 운영 사할린동포 어르신들의 한국어 능력 향상 기대

음성군이 음성읍에 거주하는 사할린 동포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문해교실-사할린 동포 소통반'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찾아가는 문해교실-사할린동포 소통반'은 박진이 사할린 동포회 회장의 요청으로 동포들이 한국어로 의사표현을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교육받을 기회 제공을 위해 추진됐다. 수업은 주 2회 2시간씩 사할린 동포회 사무실에서 진행하며,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의사표현 언어와 알아듣기, 신문 읽어보기 등 사할린동포들의 한국어 역량을 높이도록 진행한다. 교육에는 4명의 어르신이 우선 참여하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수강 인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채수찬 군 평생학습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있지만 사할린동포 어르신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만큼은 누구보다 뜨겁다"며, "어르신들의 요청에 따라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 다 함께 누리는 평생학습 사업을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충청매일 CCDN.

출처 : 충청매일(<http://www.ccdn.co.kr>)



음성군이 음성읍 거주 사할린 동포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교육을 위해 '찾아가는 문해교실-사할린 동포 소통반'을 운영하고 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이고리 파르후트지노브를 추모하는 사할린 스키 마라톤에 500여 명 이상 참가

제 22회 국제 사할린 스키 마라톤 대회가 이고리 파르후트 지노브를 기리며 사할린주에서 개최되었다. 전례대로 이 대회는 레스노예 마을과 유즈노사할린스크의 롤러스키 트랙 두 곳에서 열렸다. 경기에 총 500명이 넘는 스포츠인들이 참가했다.

주요 경기는 매해 레스노예 마을에서 열리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스키어들은 30km와 50km코스에서 경주한다. 이에 354명의 스키어들이 스키 마라톤에서 자신의 역량을 시험하려고 참가했다. 올해는 사할린 주민들만 아니라 하바롭스크, 연해주 지역, 아무르주, 칼리닌그라드주, 코스트로마주, 무르만스크주, 노보시비르스크주, 모스크바주, 키롭스크주, 이르쿠츠크주, 올라홉스크주, 공화국들 중에는 바슈코르토스탄, 카렐리아, 코미, 우드무르치야, 마리엘, 모르도비아, 한티만시스크, 추코트카 자치구,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그리고 체코, 오스트레일리아, 일본에서도 참가했다.

스키어들은 8개 연령별 그룹 - 18세-30세, 31세-40세, 41세-45세, 45세-50세, 51세-55세, 56세-60세, 61세-65세, 66세 이상 - 으로 나뉘어 우승을 위해 경쟁했다.

30km코스 여성부에서는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올리아나 니콜로와가 우승했고, 2위로 엘리자베타 푸네펬코와가 차지, 3

위는 엘레나 젤레즈냐이 차지한 가운데 이 두 선수도 유즈노사할린스크 대표들이다. 50km코스에서는 지난해 우승자였던 노글리키 출신의 이반 쿠스토브가 전속력으로 달려 올해도 압도적으로 우승했고, 2위는 하바롭스크의 드미트리 제르빈이 차지, 3위는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야코브 레마노브가 차지했다.

50km코스 여성부에서는 노보시비르스크의 아나스타시야 트리쉬키나가 차지, 2위는 무르만스크를 대표한 타치야나 소콜로와, 3위는 유즈노사할린스크의 마리아 무라토와가 차지했다.

동시에 유즈노사할린스크의 롤러스키 트랙에서 열린 경기에는 164명의 스키어들이 참가한 가운데 2011년생 이하 그룹과 2005년-2010년생의 스키어들이 1km코스와 5km 코스에서 경기를 펼쳤다.

Более 500 лыжников собрались на сахалинском марафоне памяти Фархутдинова

XXII международный сахалинский лыжный марафон, посвященный памяти И.П. Фархутдинова, прошёл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Традиционно соревнования стартовали в двух местах — селе Лесном и на лыжероллерной трассе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на состязания заявились более 500 спортсменов.

Главный старт соревнований ежегодно проходит в Лесном. Отсюда лыжники отправляются преодолевать дистанции 30 и 50 километров. В этом году проверить свои силы в марафоне вызвались 354 спортсмена.

В этом году помимо сахалинцев на трассу вышли спор-

тсмены, представляющие Хабаровский и Приморский края, Амурскую, Калининградскую, Костромскую, Мурманскую, Новосибирскую, Московскую, Кировскую, Иркутскую и Ульяновскую области, республики Башкортостан, Карелия, Коми, Удмуртия, Марий-Эл и Мордовия, Ханты-Мансийский и Чукотский автономные округа, Москву,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а также Чехию, Австралию и Японию.

Лыжники боролись за награды в семи возрастных группах: 18-30 лет, 31-40, 41-45, 45-50, 51-55, 56-60, 61-65, а также 66 лет и старше.

Среди девушек на дистанции 30 километров первой к финишу пришла южносахалинка Ульяна Николова.

Второе место заняла Елизавета Пуненкова. На третьей ступени пьедестала расположилась Елена Железняк. Обе спортсменки представляют Южно-Сахалинск.

50 километров быстрее всех преодолел победитель прошлогоднего марафона Иван Кустов из Ноглик. В этом году он вновь стал лидером в абсолютном зачёте. Второе место в абсолютном зачёте занял хабаровчанин Дмитрий Дербин. Тройку лидеров замкнул Яков Леманов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Лучший результат среди женщин на дистанции 50 километров показала Анастасия Тришкина из Новосибирска. Второй стала Татьяна Соколова, представляющая Мурманск. Почётное третье место у южносахалинки Марии Муратово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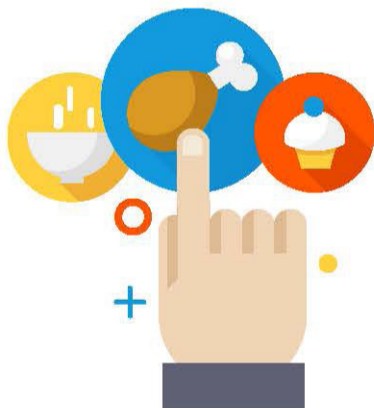
Параллельно с основным стартом на лыжероллерной трассе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остоялись соревнования для 164 юных спортсменов 2005-2010 годов рождения, а также 2011 года рождения и младше. Они бежали 5 и 1 километр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сообщает областной минспорт. (сahaslinju 언론기관 자료에서)



Ваш сервис для заказа вкусной еды

Наши преимущества:

- У нас большой выбор заведений
- Удобная разбивка по категориям
- Популярные блюда



- Информация о скидках и акциях в заведениях
- Понравившийся заказ легко повторить
- Сортировка заведений по отзывам и рейтингу



91 ЗАВЕДЕНИЕ



684 200 ЗАКАЗОВ



105 800 ПОЛЬЗОВАТЕЛЕЙ



28 075 ОТЗЫВОВ

Вы можете заказывать



на сайте eda.sakh.com



в приложении eda.sakh.com



Реклама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p>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ая장(주필) 배 워토리야</p>	<p>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2-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3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
--	---	--	---	--	--